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5호 [루게 제2755호]

주체 112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음력 4월 29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인민의 대동강은 노래한다

유서도 깊고 자랑도 많은 아름다운 평양에는 푸른 비단을 필필히 늘어놓은 듯 도시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어머니강 대동강이 있다.

예로부터 대동강구역은 세계5대문화의 하나인 대동강문화가 창조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의 중류와 하류류역은 맑은 강줄기와 넓고 비옥한 평야가 있고 물산이 풍부하며 기온이 따뜻함으로 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왔다.

하기에 평양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수도였고 천년강국 고구려의 수도였다.

이렇듯 평양의 력사가 깊어 수천년, 바로 그 기나긴 세월 속에는 언제나 맑고맑은 대동강의 용용한 흐름이 있었으니 언제부터였던가.

가는 세월과 함께 무심히 흐르던 이 강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하여, 그들의 웃음과 랄만, 사랑과 행복을 더해 주며 은구슬, 옥구슬이 되어 흐르기 시작한 그날은...

자주하고 하시며 혁명도 건설도 인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불리우며...  
그러부터 얼마후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과 함께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돌아보시었다.

어느덧 배는 오늘의 옥류교 위치에 이르렀다.  
젊은 새벽안개의 장막이 걸리면서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는 모란봉과 풍라도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안의 광경을 가리키시면서 여기가 어떤가고, 훌륭한 새 다리를 여기에다 놓자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시었다.

일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래로는 현광정과 대동문이 있고 우로는 모란봉과 풍라도의 아름다운 자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데 강변의 경치 또한 아름다움이 좋은 곳이었다.

이리하여 옥류교는 5개년계획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건설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2년후인 주체 49(1960)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제2대동교건설장을 찾으시었다.

그날 전국의 인민들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천리마시대에 새로 건설하는 현대적인 다리를 어떻게 이전시기에 건설한 《대동교》에 비해 《제2대동교》라고 하겠는가고 하면서 다리 이름을 새로 짓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저 풍라도 여울물이 구슬같이 반짝이면서 흐른다고 하여 옥류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옥류와 부딪치는 저 병풍같은 돌벽을 옥류빙이라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옥류라는 이름을 따서 《옥류교》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었다.  
《옥류교》!  
진정 대동강의 아름다움과 공화국인민의 민족적정서를 다 비껴담은 멋진 이름이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현지지도의 길에서 다리 이름도 친히 자신의 친필로 써주시었다.

대동강을 인민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시며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은 비단 옥류교에만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다.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한 폭의 그림마냥 솟아오른 조선태극의 특색있는 기와집인 옥류관과 대극장의 터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직은 평양시민들이 잠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이른새벽 몸소 배를 타시고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면서 한날한시에 잡아주신것이다.

옥류관 준공식의 그날 몸소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류관의 로데에서 햇빛을 받아 구슬, 은구슬로 반짝이며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시며 이 집은 터가 아주 좋다고, 참으로 명당이라고 하시며 그에 어울리는 《옥류관》이라는 이름도 친히 지어주시었다.

지난 시기 큰물피해도 많았던 대동강을 그 어떤 자연피해도 모르는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시며 호안공사도 진행하도록 하시고 대동강구역에 서해갑문을 비롯한 여러 갑문들도 건설하도록 하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이념위천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동강반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평양에 시민들의 종합적인 문화생활기지인 창광원을 건설할 때였다.  
당시 창광원에서 소용되는 물량은 대단한것이였다.

수영장과 목욕탕만 한번 채우려고 해도 수천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맑은 물로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이러한 실례를 로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일군들을 부르시어 동무들이 생각하고있는 안이 있으면 먼저 물어보라고 하시었다.

한 일군이 한동안 주저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른 나라에서 흔히 하고있는 방법대로 한번 채워넣은 물을 다시

려과하여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없이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었다.

이윽고 이께서는 다른 나라에서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원칙에서 물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수영장, 물놀이장에는 1%의 목은 물도 있어서 안된다고, 100% 보급 100% 넣는 원칙에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붉은색연필로 목욕탕과 대동강을 꼭 연결시키시며 대동강물을 끌어올리자고, 사람이 원하는대로 물을 흐르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시대가 아닌가고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창광원의 수원 은 억년 마를 줄 모르는 대동강의 흐름과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른날 평양행원과 함께 온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을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로 증축하도록 하여주시고 풍라도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분도, 옥류교와 가까운 곳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 몸소 《옥류약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분도,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창건지리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거리가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의 보급지리로 건설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분도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새로 일떠서는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대동강 한복판에 큰 분수를 설치할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도 이제 건설될 대동강의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해당 부분에 대동강물의 수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할때 대한 과업을 주신 다심한 그 은정,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는 여러 차례의 과학적인 실험과 치밀한 연구분석끝에 대동강물의 수질이 매우 깨끗하며 분수를 좌우리면 주위의 공기를 더 맑고 신선하게 해준다는것, 그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기본도 상쾌하게 할뿐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을것이라는 과학적인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야 대동강의 대형분수건설공사를 즉시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가슴뜨거운 인민사랑의 이야기들.

오늘 대동강은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날과 달을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에 하는 김정주님의 크나 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원한 인민의 옥류가 되어 절세위인들의 그 사랑, 은덕을 노래하며 굽이쳐 흐르고있다.

지금도 대동강 푸른 물결 위에 두들실 떠있는 종합분수 《무지개》호에 오르면서 새로 건조된 배를 돌아보시며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분수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에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그리고 품치 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훌륭한 인민분수기지로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고 명명해주시고 대동강의 품치

이 볼수 있다.  
아찔한 청류벽으로 길게 늘어진 성벽, 제일 높은 봉우리들에 솟아 외적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대로 쓰이었던 최승대, 울민대, 군사들이 드나들며 적을 죽이던 칠성문, 현무문...  
대동강옆에 우뚝 솟아있는 자랑많은 력사유적 대동문도 수도방위를 위해 세운 고구려 시기의 성문이었다.

이 력사유적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폭격과 수난이 많던 민족의 력사, 대동강반의 력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임진조국전쟁시기에도 우리 나라에 침입한 섬나라의 강도배들은 대동강을 건너와 평양성을 점령하고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였다.

국력이 약했던 지난날에는 천연의 자연방패인 대동강도, 모란봉에 높이 쌓은 성벽들도 우리 겨레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었다.  
국력이 약하면 침략의 군화

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의 위치가 정말 명당자리라고 하시며 오늘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에하는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오는듯싶다.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지난 10년여간에만도 대동강반에는 풍라공동어판, 풍라물놀이장, 풍라유희장,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 미미과학자거리로 비롯한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기지들과 봉사기지를,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치시던대로 대동강과 그 주변이 통째로 인민의 유원지,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과연 평양이 생겨 어느때, 어느 시기에 대동강이 이렇듯 인민을 위한 기쁨과 행복의 구슬이 되어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싣고 즐기치게 하려셨던가.

그것은 천하의 절승경계도 인민에게 부부하지 않는다면 필요없고 그 어떤 억만금도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는 인민사랑을 지니시고 조국도 산천도 인민에게 부부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생의 로고와 헌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위민헌신의 세계가 날은 빛나는 결과이다.

인민의 존엄 비긴 대동강

이 볼수 있다.  
아찔한 청류벽으로 길게 늘어진 성벽, 제일 높은 봉우리들에 솟아 외적을 감시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대로 쓰이었던 최승대, 울민대, 군사들이 드나들며 적을 죽이던 칠성문, 현무문...  
대동강옆에 우뚝 솟아있는 자랑많은 력사유적 대동문도 수도방위를 위해 세운 고구려 시기의 성문이었다.

이 력사유적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폭격과 수난이 많던 민족의 력사, 대동강반의 력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임진조국전쟁시기에도 우리 나라에 침입한 섬나라의 강도배들은 대동강을 건너와 평양성을 점령하고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였다.

국력이 약했던 지난날에는 천연의 자연방패인 대동강도, 모란봉에 높이 쌓은 성벽들도 우리 겨레의 운명을 지켜줄수 없었다.  
국력이 약하면 침략의 군화

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으로 존엄높고 있었다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해 더욱 억척으로 다져진 최강의 군력이 존엄높은 공화국인민의 삶을 지켜주어 오직 오늘 대동강은 영원히 침략의 발길이 닿을수 없는 존엄의 강, 평양의 강, 락원의 강으로 되었으며 인민은 그 어떤 전쟁불안과 위구도 모르고 기쁨과 랄만의 웃음만을 아름다운 대동강물결 위에 실어가는 행복한 인민으로 누리며 그 존엄 더욱 빛나게 되었다.

오늘도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광장에 서서 대동강쪽을 바라보면 창공에 높이오른 것은 주체사상탑이 한눈에 안겨온다.

낮에도 빛나고 밤에도 봉화가 떠오르는 주체사상탑. 그 랄은 인류사상상의 최고보물고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비상한 견인력을 세계민방에 파시하는 랄이다.

랄의 높이는 한눈에 안겨오지만 그 빛발은 위도와 경도를 넘어 전 세계를 환히 비쳐주고있다.

그 웅장한 자태를 비껴내고 오늘도 출렁이며 흐르는 대동강. 그 물결우에는 비로소 인간이 자기를 알게 하고 인민이 자기 운명개척의 힘있는 주인이 되게 해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이 실려있다.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현실로 꽃피어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 대동강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담아내고 즐기치게 흐르고있다.

강 한가운데서도 인민의 행복이 꽃피고 더늠은 강기슭의 그 어디서나 사계절 인민의 웃음소리 들려오는 대동강.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아 빛나고 강의 량안에는 인민의 존엄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나는 대동강반이야말로 정녕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는 대로천박물관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어 대동강은 앞으로 영원히 인민의 강, 행복의 강으로 빛을 뿌리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끝없이 물결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이것이 공화국특유의 또 하나의 사랑이고 힘이다

## - 편지를 통해 보는 사랑과 충성의 역사 -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생각이나 소식을 적어 상대방에게 전하는 편지.

여기에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과 충성의 격조가 비껴흐른다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과 충성의 편지의 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된 공화국특유의 또 하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 \*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달리기에 편지들을 넘쳐흐르던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의 물결, 그 꿈을 찾아달리고달리던 험참고 담찬 모습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깊은 여운을 남겼다.

돌아보면 이 땅에서 편지와 함께 사랑과 충성의 역사가 시작되었는 세 조국건설의 노래소리 높이높이 울리던 그때부터였다.

«...나라는 토지분여받은 북조선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민주국가창건에 일야분투하시는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감사와 결의를 표하는바입니다.

나는 극비농가의 둘째아들로 태어나서 3년간이나 머슴살이를 하였으며 생활이 시달리고 지주와 왜놈들의 착취와 압박에 못기어 고향을 떠나 신천을 거쳐 재령군 삼강면에 와서 해방전까지 비참한 소작인생활을 계속하여왔습니다.

...8.15해방을 맞이하여 영명하신 김일성장군의 지도 밑에 북조선민선인민위원회의 토지개혁실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혜택으로 처음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었으며 그 혜택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여졌고 자유로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혜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마

음과 인민정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아울러 김일성장군에 대한 감사는 끝이 없습니...

«...과거 암흑한 속에서 착취를 받던 우리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로동법령을 발표하여주시니 무...

한한 감사의 뜻으로 랑손을 높이 들며 이 법령을 지지하는바입니다. 먼저 토지개혁을 완수하시고 20개조정강을 발표하신 후 이번에도 20개조정강중의 14조, 15조에 근거...

하여 구체적으로 되는 이 로동법령의 내용을 보고 감사하는바이며 이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산돌격인것을 깊이 명...

심하며 지도 한개의 로동자로서 장군에게 무한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올리는바입니다. 민주주의건설사업부흥에...

대 생명을 다 바치어 싸울것을 맹세합니다. ...»

«...특히 저희들 녀성들이 남자들과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마음껏 일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어찌 잊을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기쁨을 아끼이면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많이 일할것을 맹세하는바입니다. ...»

이것은 토지개혁법발포 후 황해도 재령군 삼강면 설산리(당시)의 한 농민과 해방된 이듬해 로동법령을 받아안은 로동자 그리고 문명퇴치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우리 글을 배운 기쁨과 행복을 안고 리계산녀성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삼가 올린 편지의 내용들이다.

비록 요란한 표현은 없어도 편지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볼수록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꿈같은 행복을 안겨주시는 어머니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과 끝없는 고마움의 격정으로 어찌 감사를 배울수있었겠습니까. 그속에는 재령땅의 한 농민이 예곡미 30가마니를 싣고 찾아왔을 때 훌륭한 예곡적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를 맥에서 만나 고무해주시었으며 그와 재령군농민들에게 친히 감사편지를 써주시신 사실도 있고 까마득을 띄우고 계손으로 한자한자 정히 편지를 쓴 한 녀성에게 누구나 이약하게 노력하면 안될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친히 회담편지를 보내주신 사실도 있으며 이 땅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감사의 정을 담아 올린 편지들을 회담장을 보내주신 이야기들도 있다.

해방의 감격에 목매어 인민들은 수령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고 수령은 인민들의 깨끗한 진정을 소중히 여겨 친히 회담까지 보내주신 이야기, 이렇게 이 땅에서는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가는 편지의 역사, 사랑과 충성의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그속에는 바다벌리 이역방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제일 동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란봉정기장(당시)에서 진행된 어머니수령님께 드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의 모습을 떠올려군 한다.

그때 어머니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한덕수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을 축하하는 60만제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함께 제일 동료들의 한없는 경모의 정과 뜨거운 마음이 담긴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편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수령과 인민사이 오고간 편지의 역사는 것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에도,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계속 이어졌으니 그 모든것을 합치고합치면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배우시는 열화같은 인민의 서사시가 되고 자기 령도자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이 나라 인민의 보람의 대화가 된다.

# 절세위인들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오는 6월 19일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과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년간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민족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으로 천만인민을 총결기시킨 정치적사변이었다.

당을 령도하여오신 나날 그이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은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본태와 성격을 고수하고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려운 나날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의하여 혁명적근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나래치고 인민과 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인민군대가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만드는 역할의 지지점으로, 조선로동당기를 제일군기로 들고 나가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났으며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스승이였으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은 당의 로선과 정책작업의 출발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곤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인위천의 숭고한 리념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뜨겁게 깃들여있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위대한 총애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다산한 사랑의 손길에도 어려어였다.

어머님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영원한 삶의 품으로 천만인민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배방으로 높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세계적변혁을 이룩하시며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도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정사에 금문자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기풍이 세게 되었다.

수재인들은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일군들은 전방에서 사업한 감동있는 이야기, 최대비상방역전의 나날 인민군대가 인민의 생명수호와 건강강보를 위해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가슴뜨거운 화폭을 비롯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수많은 사실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이인위천, 위대헌신의 숭고한 정치리념이 안아온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력은 더욱 강화되고 강국의 세시대가 펼쳐지고있으며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있는 령도적 성과들이 령이여 창조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가고 있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은 절대미문의 도전과 난관속에서 사회주의건설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진전을 출가하여 인도하며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천하에 힘있게 떨쳐올수 있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에서 온 나라 인민은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있으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했고있다.

서충혁

인민이 바라고 념원하는것이리만 천가지, 만가지 기적과 변혁을 모두 이루어내고 인민의 고통과 아픔을 가셔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서슴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경륜을 이 땅우에 आरो세겨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할때 대한 정치리념이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철학이 구현되어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뚜렷한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시고 환경생 구현해오신 국가건설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어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에 의하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익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 건설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령이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일떠서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이 나라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참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공고한 정치풍토, 국력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인민의 리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출가하여 다그쳐나갈수 있는 불멸의 지침과 실천강령들을 제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로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고계시는분이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공화국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강국의 공민된 인민의 자부심이 비상히 승화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도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공화국의 면모는 인민의 운명과 생활,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네

서충혁

#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위대한 나라

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것은 공화국이 최후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활동원칙이다.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공화국의 진보습은 세계적인 보건의위상향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시적인 대책들을 끊임없이 취해나가는 데도 어려웠고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큰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 천신만고로 다하며 분투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위한 살림건설이 퉁이 크게 벌어지고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 체험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지난해와 올해만 하여도 수도 평양에 보통강강안다락사주책자와 송화거리 1만세대 살림집,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서고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학생

# 흥하는 농촌, 늘어나는 별천지

지금 공화국의 농촌마을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에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농장마을들에 새집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2월과 3월, 4월과 5월, 6월에 들어서서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시대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요구에 맞는 문화농촌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너무도 꿈만 같아 새집에 선풍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이 이렇게 한날한시에 멋쟁이 새집을 받았습시다. 저렇게 남너로소모두가 흥겨운 춤판을 떠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요 우리 나라에서처럼 국가가 농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년벌로 만들어 나라의 은덕에 기여이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없

는 우리 마을에 이렇듯 희한한 새집들이경사가 났으니 정말이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무수 말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장원들모두가 올해에 어떻게 하나 풍년로적가리를 높이높이 쌓아올릴 결의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 새집을 받은 농업근로자들이 저마다 러치는 이 격정의 목소리는 이 땅에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에하는 김정원수님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 이 땅에서 사는 북한은 농업근로자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의 토로이다.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의 소중함이고 소원이요. 그 꿈과 소원이 이 땅에서 사는 북한은 농업근로자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의 토로이다.

사시절 조건에 걸맞은 이 땅에 애국의 랑심을 묻어가는 농업근로자들.

그들을 새 문명의 주인으로, 새시대 농촌진흥의 참된 주인들로 내세우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에 떠받들려 이 땅에 장엄한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강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가장 엄숙한 도전과 난관이 충첩된 시기에 농촌진흥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셨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의의를 통찰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시기부터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농촌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만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특색을 잘 살리며 발전시키려갈데 대한 문제,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먼저 표준군들을 잘 꾸러 전형을 창조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 등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의 대명령을 안아오시던 령도의 나날에 제시하신 농촌건설발략들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가기》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밝히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시는데 농촌건설에서의 최대과업으로 제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농촌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만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그에 맞게 하며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추데 대한 문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기 위한 과업,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 주요자재들과 마감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에도 건설생산기기를 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해주셨다.

이뿐이 아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촌혁명강령이 지체없이 실행되도록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시, 군건설려단조직과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도록 하시었다.

이 나날 농촌살림집건설과 관련한 2 000여건에 달하는 설계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었으며 농촌건설용세멘트를 시, 군들에 전진공급하기 위한 수송수단, 수송방법과 보

판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 중시하고 그 옳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시었다.

이처럼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농촌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살림집들이 준비하게 되어오므로 농업근로자들은 문화농촌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지금 공화국의 농촌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발판공사를 비롯한 올해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어 가을과해를 많이 받던 고장에서도 물고생을 모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다.

하기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 땅위에 현실로 펼쳐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이요말로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보살펴주고 바람도 비도 다 막아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

이라고 하면서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을 쏟고있는것이다.

끝없이 베풀어지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날에날마다 받아안으며 이 땅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려는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풍년로적가리를 높이높이 쌓아 나라의 은덕에 기여이 보답하자! 이것이 이 나라 농촌지역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그 맹세를 지켜 전야마다에 티없이 깨끗한 랑심을 묻고 성실한 맘을 바쳐가오겠다.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깨끗한 랑심과 헌신의 땀방울에 실려 이 땅에선 사회주의농촌문명이 날로 꽃피고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인민의 아버지 경에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농촌진흥의 새시대에 펼쳐진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울려나오는 농업근로자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탄생소리는 하늘가에 높이 울려떨어지고있다.

리일현



**방문기**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국내최우수 제품들 중에는 여러가지 농산물들도 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였었다. 그중에는 신선로, 땀면그릇, 밥그릇, 국그릇, 술가락, 저가락, 주전자와 같은 농산물기류들도 있다.

우리 겨레가 즐겨 사용했던 농산물들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고 공예품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도 우리 겨레는 밥, 국, 나물, 찬 등 모든 음식들을 농산물로 담아먹었고 세수대야나 시루, 화로까지도 농산물로 만들어 사용하였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을 채운 독안에 농산물들을 넣어두어 물을 정제하였고 절임음식을 만들때 단지에 담고 가운뎃을 박아넣어 음식물의 부패변질을 막았다고 한다.

얼마전 우리는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농산물기류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있는 보통강

주방설비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김복성지배인은 공장 연혁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은 창립당시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으로 첫발을 뗐다고 한다.

그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부속재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여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에 적극 의거하고 대동적기술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활발히 운영하여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어 마음껏 배우는 과정에 많은 종업원들이 기술자, 기능공예로써 들어서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가공작업반, 프레스작업반, 공무작업반 등 생산현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이 농산물기류들을 여러가지로 만들어내고있었다.

부드러운 색깔과 은근한 광택, 여러가지 섬세한 장식부각으로 하여 하나의 정교한 세공품을 현상케 하는 농산물기류들은 볼수록 훌륭했다.

이들에 의해 손색없이 완성된 농산물기류들을 보며 감탄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기류들이 2월2일제품등록증상장을 수여받았다고,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전시회들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기류들은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쓰기에 편리한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공장에서 40여년째 일해온다는 선반공 조경희녀성도 만나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에 존엄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여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대앞에 설 때마다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의 랑심이 깃든 훌륭한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일하고있습니다.»

비록 맑은 소박하여도 민족의 재부를 지키고 더욱 빛내기 위해 아글라글 예스는 이쪽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들이 만드는 농산물기류들이 공장을 대표하는 인기있는 명제품으로,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기류들은 볼수록 훌륭했다.

이들에 의해 손색없이 완성된 농산물기류들을 보며 감탄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기류들이 2월2일제품등록증상장을 수여받았다고,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전시회들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기류들은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쓰기에 편리한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공장에서 40여년째 일해온다는 선반공 조경희녀성도 만나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에 존엄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여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대앞에 설 때마다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의 랑심이 깃든 훌륭한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일하고있습니다.»

비록 맑은 소박하여도 민족의 재부를 지키고 더욱 빛내기 위해 아글라글 예스는 이쪽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들이 만드는 농산물기류들이 공장을 대표하는 인기있는 명제품으로,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별세 몇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른다.

《화성거리 화성1동 19인민반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도 제 집을 찾아간다는 말만은 차마 입밖으로 나가지 않아 우물우물하며 새집을 받은 친구를 찾아가는 흥내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 집을 몰라 거리를 헤매는 이런 한심한 세대주가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다.

석달 가까이 지방에 출장을 나간 사이에 화성거리 새집을 받고 안해 혼자서 이사를 하더니 안다는것은 집주소 뿐이었고 TV로 그처럼 눈에 익힌 새 거리가진만 처음은 더 낱아보는 나는 그대로 관청에 온 촌담신세가 아닐수 없었다.

안해가 마중나오겠다는것을 혼자 찾아간다고 우겨댄 것이 후회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웅장화려한 새 거리, 이제는 나의 집이 자리잡은 《나의 거리》를 발목이 시도록 거닐어보는것도 참 즐거운 일이라 힘든줄 몰랐고 얼굴에선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간난신고》끝에 화성1동 19인민반이라는 현판명판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없었다.

선뜻 아파트 현관안으로 들어서기 지어하며 웃음을 다시 머미는데 현관문으로 나오던 한 중년의 녀인이 누구를 찾아오는지 묻는것이였다.

나는 얼굴의 맘을 훑치며 처음으로 버젓이 대답했다. 《내 집 3층 1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스만 가지고 새집을 찾아오느라 탐개나 했다고 우스개소리를 덧붙였다. 《할 행복한 집주인이구만

요.》

동네아주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멍뚱은 웃음을 남기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나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졌다.

제 집을 찾지 못해 한나절이나 헤매고 다닌 집주인이 참 웃지 않을수 없는 일이지만 왜서인지 가슴은 뜨거워

올랐다.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와 안해 이렇게 4명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전실까지 달린 3칸짜리 집이여서 큰 불편을 모르던 나였다.

그래도 신선살림이라 들어서 오뎅하게 살아보고싶은 생각, 부모들의 슬하를 떠나 당당한 세대주의 《권리》를 행사해보고싶은 욕망이야 왜 없었겠나 부모님들앞에서도 내색하지 못한 마음속욕망이 현실로 되어 신경의 새 거리에 나의 집이 생길줄이야.

간단없이 사색의 가치를 떠나가나니 어느한 출판물에 실렸던 기사의 한대목이 떠올라 때부를 파고들었다.

저기 남쪽땅에서 한평생을 다 바쳐서도 이루지 못한 《내 집마련의 꿈》을 천후의 한으로 남김채 지주로운 세상을 떠난 기사의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이 눈앞에 밝혀졌다.

무슨 일인들 못했으며 무슨 고생인들 겪지 못했으면 끝내 이루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저주와 절망으로 화하여 끝내 내 피로 적셔야 했던 《내 집마련의 꿈》.

희한한 고대광설도 아닌 단 한간이라도 족할 내 집, 그 쪽방마저도 한생을 바쳐서도 얻을수 없는것이 바로 기사의 주인공이 사는 남쪽

의 현실이고 《사치》와 《변역》을 자랑하는 자본주의사회 어디서나 비밀비제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틀어가느라니 나는 과연 내 집마련을 위해 얼마만한 맘을 바쳤던가 하는 생각으로 죄스러워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모두가 내집을 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얼마나 고마운 우리 나라인가.

평양시에 당의 은정어린 1만세대의 송화거리가 일떠서

고 이해에는 화성거리에 또 화려한 새 거리가 일떠서서 부러워졌지만 내가 그 거리의 주인이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너무도 생각밖에 받은 행복, 너무도 꿈만 같이 차려진 인생의 크나큰 기쁨.

그래서 나는 자기 집이 어디쯤에 자리잡고있는지도 모르는 행복한 《바보》가 되 있었다.

이런 가슴뭉클해지는 풍경이 고마운 우리 사회 말고 이 행성 어디에 찾아 또 찾아볼수 있겠는가.

참으로 나는 지금껏 받아안는 사랑과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다 모르고 살아온 행

복한 사람이었다. 아니 당의 크나큰 은정을 매일 매 시각 받아안으며 사는 우리 인민 모두가 세상에서 제일행복해야 할 행복의 주인공들이라 불러야 할것이다.

후두위로르는 마음으로 집문앞에 이른 나는 조인종을 눌렀다.

귀에 익은 안해의 목소리, 행복에 겨운 그 목소리와 함께 집문이 열렸다.

《혼자서 집을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안해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혼났소. 하지만 이런 (고생)이라면 백번인들 마다하겠소. 정말 행복의 우리 집이고 행복의 우리 세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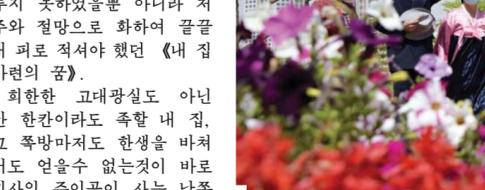
밝고 아늑한 우리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나의 마음,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들려왔다.

...

아침해가 찬란한 우리 조국은 인민들이 주인된 행복한 나라

...

손지성





# 또다시 라오르는 항쟁의 불길

올해는 남조선에서 6월민항쟁이 일어난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6월민항쟁은 군사파쇼독재와 미국의 식민지정착을 반대하고 사회정치생활의 자주화, 민주화실현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반파쇼항쟁이었다.

광주의 피바다우에서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군사정권무리들이 장기집권을 획책하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들고 일어나 《호헌철폐》, 《직선제개헌》, 《독재타도》를 웨치면서 대중적인 항쟁을 벌여왔다.

청년학생들이 앞장서고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종교인, 재야정치생활의 자주화, 상인, 일반공무원들 지어 전투경찰대원들까지 합세하여 연 500만명이 참가한 대

중적인 항쟁은 군사파쇼독재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말부러지게 뒤흔들어놓았다.

6월민항쟁은 불의와 파쇼를 절대로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의지와 투쟁기개를 다시금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와 그와 결탁한 파쇼독재자들의 회유기만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며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철저히 실현할 때까지 반미반파쇼투쟁을 계속 출기차게 벌어나가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도 남기었다.

6월민항쟁이 있는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쇼독재와 더불어는 검찰장관에게 의해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인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친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6월민항쟁용사들과 인민들을 모독하고 우롱하였다.

또한 자주정치, 민주정치를 요구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다 못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불법세력》, 《내란세력》으로 몰아 폭압을 가하고있으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의 진원

지》라고 하면서 파쇼칼부림을 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친년속적인 섬나라족속들까지도 손잡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미쳐달리며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남조선에서 식민지파쇼독재체제, 반공화국대결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하기에 6월민항쟁용사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군사독재 지지하는 미국 물러가라!》의 구호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공안탄압, 로조탄압, 조분탄압 막아내자!》, 《검찰독재 윤석열타도》, 《미일의 전쟁물적대 윤석열퇴진!》, 《퇴진이 평화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 반독재,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은 파쇼의 란무장,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핵전쟁의 발원지로 전변시킨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사대매국노, 파쇼독재자, 대결미치광이들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요즘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무슨 1년간 《성과》에 대해 광고하고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라는자는 《특검강연》이라는에서 《안보강화》이니, 《대선지지도회복》이니 하고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구구히 늘어놓으며 지지몰이를 위한 원인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발목잡기》에 있다고 두들겼다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것들은 인터넷트럼프지에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 폐지를 신설하는 등 윤석열역적패당의 1년간 《치적》을 광고해대고있다.

낮가죽이 곰발등같은자들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집권 1년간 무슨 《성과》가 있다고 그리고 침방울을 뿜기며 제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는것이다.

1년간 평가는 제스스로 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민심이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의 생동한 현상인 거리거리들에서는 어떤 웨침들이 울려나오고있는가.

《윤석열이 재난이다》, 《윤석열심판!》, 《윤석열퇴진!》, 《윤석열을 몰아내자!》, 《살인자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남조선의 거리거리들에서 들려오는 이 윤석열역적패당성들에 역도의 집권 1년 평가가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남조선 각계는 왜 성난 목소리로 윤석열퇴진을 웨치고 있는것인가.

역도가 집권하여 해놓은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민심에 역행하는것이고 이런자를 그냥 뒤흔어두었다가는 남조선인민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악몽이

게 만들었다.

망둥어 제 새끼 잡아먹듯 근로대중에게는 검찰장관의 폭군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도 외세에게는 합없이 굽신거리며 경제를 통째로 떠넘기고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삼기면서 전쟁불장난만 일삼

무지하며 외교는 문외한인데 사대매국은 극성이고 전쟁대결은 광적인 윤석열역적패당의 배반적 비참상이며 역도의 《치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역적패당의 1년간 치적에 대해 《군사독재시대를 편상시키는 1년》, 《민중의 입과 귀를 가리우는 암흑적의 1년》, 《(국정) 무능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뻔뻔스러운 1년》,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불안에 떨어온 1년》 등으로 락인하고 규탄하고있는것이다.

무지무능과 반민적악정, 사대매국과 전쟁책동 등으로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아온 윤석열역적패당 그대로 두고서는 현제도 미래도 없다고 하면서 반미, 반전, 반 《정부》투쟁에 떨쳐나선 민심의 목소리에 역도의 죄악에 대한 총평이 있고 판결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그 무슨 《성과》에 대해 운운하고있으니 가소로운 《치적》자랑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한일혁

## 최 많은 자들의 《치적》 타령

있었다.

검찰에 있을 때 사рам잡는 기질밖에 배운것이 없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해서 온 남조선민심을 검찰독재의 무지무식한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저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세력과 야당들을 모조리 적으로 돌리고 정치보복과 수사의 칼부림을 해대었다. 그런가 하면 친재벌정권을 실시하고 《로동개혁》을 떠벌리며 로동자들의 목을 조이는 로동개혁을 하여 분노를 자아내고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조들이 다 들고 일어나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

였다.

나중에는 우리 민족의 친년속적인 일본의 과거죄악을 무마해주면서 재침의 걸잡이, 섬나라의 핵오염수방류를 비호두둔하는 《변호사》노릇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검찰독재가 횡행하고 빈부격차는 하늘땅차이로 벌어지고 전쟁위험이 최대로 높아가는 속에 사람이 죽고 경제가 죽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이 모든것은 누구의탓이 아니라 정치는 무능하고 경제는

도 인지하지 못하는 청맹과 니들의 가소로운 망둥이 아닐수 없다.

갈수록 격화되고있는 조 선반도의 정세인정 미일상전을 등에 업고 전쟁대결에 미쳐달리는 역적패당의 무모한 군사적당동에 의한것이라는것은 세인이 인정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연습과 군비확장 등은 조 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주요인자들이다.

《동맹》, 《혁명》을 떠벌이며 미국상전에게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조 선반도의 정세는 시시각각 핵전쟁의 립계점에 다달고 이것은 세계평화에도 아무도 그림자를 드리우고있다.

이런 속에 역적패당이 또 다시 미일상전과 반공화국대결의판을 벌인것은 남조선의 작태가 반공화국을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완전히 내맡기고 미국주도의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 작에 구주 가담해서사는 무분별한 군사적당동이 아닐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갈수록 무시되고 맹대를 받는 반공화국 압박 《공조》를 되살려버리고 어리석게 놀아내고있는것이다.

류광훈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강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독자적대응능력》과 《미일남조선 《동맹》 강화로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국가안보전략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추악한 망둥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곧 신성한 존엄과 국토,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힘이며 조 선반도와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고 최근 더욱더 로골화되고 강화되는 미일남조선의 군사적력과 전쟁위협책동의 공화국에 정의의 힘, 수호의 힘을 갖추고 비약시켜온것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욱 위력하게, 누구도 견주지 못하게 다지고 버려온 공화국의 가공할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전멸할뿐이다.

그런데 감히 윤석열역적패당이 가소롭게도 《독자적대응능력》을 떠들고있으니 범부수준을 모르는 하루강자의 책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다.

역적패당이 미국의 《포괄적전략동맹》 구축, 일본과의 《새로운 미래》를 운운하였는데 이것은 남조선은 미일의 2중식민지로 전락시키는것도 모자라 조 선반도를 통째로 외세의 통략물, 식민지로 만들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조 선반도를 집어삼키지 못해 안달아하는 미국과 제침의

칼을 버리는 섬나라것들과의 군사적력차이로 공화국과의 전쟁대결을 성문화한것도 모자라 역적패당은 세인의 지탄을 받아 넘바짝이 된 《단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또다시 내놓으며 반공화국모략기도도 드러냈다.

보는바와 같이 윤석열역적

패당의 이른바 《국가안보전략서》라는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극악한 전쟁각본, 대결각본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망상하는 미일상전에게 남조선을 침략적인 핵전쟁전초기지, 병참기지로 완전히 섬겨버리려는

추악한 전쟁하수인의 매국문서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도 역적패당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결에 방점을 둔 전략서》, 《굴욕으로 일관된 외교안보문서》, 《대국의 리어를 우선시하는 전략》 등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있는것이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염원,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레없는 오직 수처와 파멸뿐이다.

장수국

# 《닭그네》의 전철을 밟아가는 《윤재양》

정적인, 사무원, 로동자, 농민, 종교인, 청년학생 등 남조선 각계층이 전역에서 웨치는 《윤석열퇴진!》, 《윤석열역적패당을 물러가라!》,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의 함성은 날이 갈수록 그 진폭이 거세어진다.

어찌 보면 수년전 박근혜 역도를 탄핵하던 때를 방불케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정치

평론가는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때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이 갈길은 박근혜가 간 길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윤석열정권 조기붕괴의 조짐이 보인다》는 민심의 평에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따라가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종말이 비껴갔다.

《백마디공주》라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눈길조차 건사 못해 《도리도리윤》, 《윤도리랑》으로, 《주 120시간로동제》,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돈없는 사람은 불쌍스피라라도》와 같이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여 《1일1만원후보》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는 나쁜놈의 행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보사...》와 같

은 부실한 대답을 하여 《무지몽매한 인간》 등으로 통칭되었다.

보는바와 같이 정신적, 심리적면에서 박근혜역도를 그대로 빼물은 윤석열역적패당사람들은 《바지입은 박근혜》, 《남자 박근혜》라고 야유하였다.

이런 윤석열역적패당이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따라가는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것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는 떨어놓고 《동맹》강화를 고야대며 정치이고 경제이고 군사이고 달라는대로 다 주며 섬기고있다.

섬나라것들과도 《미래》를 운운하며 과거의 피비린 죄과도 덮어주고 친년속적의 재침 야망에도 박수를 쳐주고 길을 내어주며 과거의 식민지시절에 로 력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

리고있다.

외세에게는 그렇게도 극성이지만 공화국을 향해서는 망인, 폭언에 광란적인 전쟁말등을 부리며 지랄발광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지난 1년간 외세와 결탁하여 강행한 반공화국전쟁연습과 전쟁모의들은 력대 집권자들의 북침전쟁책동공모를 훨씬 능가한다.

《닭그네》는 결국 임기도 다 못채우고 《탄핵》의 초불바다에 타버리고말았다.

박근혜를 닭고 박근혜를 따라가던 윤석열역적패당도 지금 퇴진의 거대한 함성에 직면해있다.

그것도 집권해서 이제 겨우 1년밖에 안되었는데 남조선의

각계로부터 규탄배격을 받고 퇴진압력을 받으며 《조기붕괴》의 비방끝에 서있으니 박근혜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윤석열투쟁의 형태와 양상을 보면 박근혜탄핵시절과 비슷하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단체, 민심은 칠푼이라고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와 풍자조소의 대상이 되어 퇴진, 실란, 파멸의 규탄을 받고있는 가련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이 모든것은 회대의 정치무능, 추악한 사대매국노, 천하의 대결광인 《윤재양》이 제스스로 초래한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 마련이다. 하물며 죄도 용서받을수 없는 특대형 죄만을 가득 지은 윤석열역적패당도고보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바지입은 박근혜》

같은 종자끼리는 서로 통하는게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역도와 윤석열역적패당의 권력행태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것도 그래서인지 모른다.

시작부터 닭았다.

박근혜역도는 불과 3.6%의 차이로 당선되었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그보다 더 막연한 0.73% 정도의 차이로 간신히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역도는 《유신》에미의 후광으로, 윤석열역적패당은 《정권교체》에 혈안이 된 《유신》후예들에 의해 등을 떠밀려서...

그래서인지 박근혜를 《어쩌다 당선된 그네》로 야유했던 남조선민심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해서는 《얼결에 《대통령》 버거지를 뒤집어 쓴 꼭두각시》라고 조소하였다.

철저한 미신쟁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짝지 않는다.

박근혜역도는 최태민과 그

의 딸 최순실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를 이어오며 《세뇌》되고 지배된 미신쟁이로 면 윤석열역적패당은 미신쟁이로 면에게서 《령》적인 《세뇌 교육》을 받은것은 물론이고 《건진법사》, 《천공수승》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무는 미신쟁이다.

윤석열의 미신쟁이라는 《대통령》 선거 당시 순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대중앞에 나섰을 때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대통령》 사무실을 청와대에서 옮길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둘 다 지능지수가 현형없다는것 역시 빼놓을수 없는 점이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던 박근혜역도는 대중앞에 나선면 할 말도 제대로 찾지 못해 《어버버!》, 귀땀해준 말을 적어놓는 수침이 없었던 일인반수도 번지지 못해 《수침공주》, 머리속에 든 단어가 백경도뿐이어서 《닭그네》,

## 파쇼와 전쟁광기를 부리는 독재광

윤석열역적패당이 당선되어 제일 먼저 찾아간것은 박근혜역도였으며 만나서는 《늘 죄송했다》,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다.

무엇이 《죄송》했고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것이였는가.

박근혜역도에게 최고령을 채웠던것이 《죄송》한것이라고 한 회대의 《국정통탄》으로 남조선을 암흑세력으로 만들었던 박근혜를 끌어내린 조분투쟁이 《갈뚱》된것이라는 수작이고 《명예회복》은 곧 박근혜가 이루지 못한 《유신》독재부활의 망상을 자기가 실현하였다는 《명약》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역적패당은 박근혜역도를 풍자하는 《유신》독재에 짝지 않는 파쇼독재의 추악한 자취를 이어왔다.

전례없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놓고 검찰독재의 칼부림을 일으킨 윤석열역적패당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반파쇼세력에 대한 정지보복이 횡행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한 《민주로총》과 같은 로동계는 《내란세력》, 《중복세

력》으로 락인되어 무지한 파쇼독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민심을 실러라, 농민을 죽이지 말라, 《로동개혁》, 《교육개혁》을 반대한다고 토로하며 각계층이 초불을 들었던만큼 《불법폭력세력》으로 몰리우고 이를 보도한 언론들은 《가짜뉴스 진원지》로 매도되고있지 않는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몰아온 파쇼광풍의 회오리속에 남조선에는 박근혜역도때보다 더한 암흑시대가 도래하였다.

박근혜역도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앞에서 머리 깨달은 학생처럼 속세를 굴속이며 비굴하게 놀아대었다면 윤석열역적패당은 그보다 훨씬 더 비굴하게 미국과 일본의 바지가쟁이를 부여잡고 굴종의 최고기록을 세우고있다.

## 역도를 불래우는 오늘의 초불바다

무지무능한 《닭그네》는 결국 임기도 다 못채우고 《탄핵》의 초불바다에 타버리고말았다.

박근혜를 닭고 박근혜를 따라가던 윤석열역적패당도 지금 퇴진의 거대한 함성에 직면해있다.

그것도 집권해서 이제 겨우 1년밖에 안되었는데 남조선의

각계로부터 규탄배격을 받고 퇴진압력을 받으며 《조기붕괴》의 비방끝에 서있으니 박근혜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윤석열투쟁의 형태와 양상을 보면 박근혜탄핵시절과 비슷하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단체, 민심은 칠푼이라고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와 풍자조소의 대상이 되어 퇴진, 실란, 파멸의 규탄을 받고있는 가련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이 모든것은 회대의 정치무능, 추악한 사대매국노, 천하의 대결광인 《윤재양》이 제스스로 초래한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 마련이다. 하물며 죄도 용서받을수 없는 특대형 죄만을 가득 지은 윤석열역적패당도고보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강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독자적대응능력》과 《미일남조선 《동맹》 강화로 《강력히 억제》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그 무슨 《국가안보전략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

# 아름다운 장미꽃 풍경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향기롭고 빛깔고운 장미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꽃들중의 하나이다.

장미는 사랑과 열정, 고상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여러종의 장미품종을 품종순화시키고 국

가품종으로 등록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평양시내의 곳곳에 활짝 피어나 오가는 사람들을 반기고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의 정취를 한껏 돋

구어주고 있다. 평양시에서는 여러 품종의 장미를 원림특지구역들에 심어 수도의 면모를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고 있다. 공원, 유원지들과 려명거

리, 미래과학자거리, 광복거리를 비롯한 시내의 곳곳에 피어난 장미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준다.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장미꽃풍경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공화국인민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명술은 1910년대초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조영암이었던 그의 본명을 고향에 있는 려명산의 첫 글자를 따서 려명이라는 아명으로 지어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가 애정을 담아 조용히 부르던 아명은 작가의 진짜이름으로 퇴고되었다. 그는 문학에 뜻을 품고 열정을 쏟아부은 열혈작가였으며 미국땅에서 피눈물나는 고향 생활도 맛본 문필가였다. 고학당시 자기가 쓴 작품이 1등으로 당선되었을 때 작품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그는 《진주라 천리길》, 《집 없는 천사》, 《락화류곡》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들을 써 내는 것으로 눈물에게 항거해 나갔다. 해방후 서울에서 조명술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장막 희곡 《혁명군》(《독립군》)을 창작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그의 창작적재능은 공화국

의 품에 안겨 보석과도 같이 빛을 뿌리게 되었다. 그는 시, 희곡, 가극문학의 창작, 민족고전작품들의 각색과 유색 등 다방면에 걸치는 창작활동에서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명술은 종래의 민요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작할 결심을 품고 해방전 한란의 상징으로 된 가사들을 새롭게 완성해나갔다. 《법성포배 노래》, 《양산도》 등이 그런 민요들이며 특히 그가 가사를 짓고 그의 안배가 편곡한 민요 《모란봉》은 내용에서나 선율에서나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노래이다. 그는 《조국보위의 노래》, 《압록강 2천리》, 《일루스야 어서 가자》,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와 시들도 국보적인 명곡으로 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민경애에 대한 나라인민들의 깊은 동경과 사랑,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

의 감정을 담은 가사를 심혈을 기울여 창작하였으며 이것을 본 작곡가 김옥성이 훌륭하게 그 자리에서 가사에 곡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태어난 명곡이 바로 《만경대의 노래》이다. 조명술은 《전우》, 《리순신장군》 등을 비롯한 희곡들과 《공위팔귀》, 《바다의 처녀들》, 《금강산팔선녀》 등 가극대본들 역시 손색없이 집필하였다. 공화국에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 이후 집체창작의 책임을 진 그는 가극 《금강산의 노래》, 《백은 태양아래서》, 《밀림아 이야기하라》, 음악무용극 《두만강반에서의 한해여름》의 창작과 불우의 고전적명작 《한 지위단원의 운명》을 혁명가극으로 옮기는 창조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김일성상계관인인 그의 작품집으로는 《조명술시집》, 《조명술희곡집》 등이 있다. 김은철

## 학생교복과 가방, 학용품생산에 힘을 넣는다

공화국에서 학생교복과 가방, 학용품생산에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지방공업성, 경공업성의 일군들과 려관단위 일군들, 피복전문가들은 학생교복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결린 문제를 풀며 생산지휘를 치밀하게 진행 하고 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과 황해북도, 라선시를 비롯한 각지의 피복공장들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여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다. 은하무역국과 봉화무역국의

피복생산단위들에서도 공정조작을 합리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교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학교 3학년 녀학생들을 위한 여름철교복생선이 결속되어 공급을 시작하였다. 피복공장들에서는 생산한 교복을 학생들에게 입혀보면서 새 학생의 몸에 꼭 맞는가를 알아보고 미흡한 점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고 있다. 학생가방생산을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평양가방공장, 평성가방공장, 사리원가방공장의 생산자들은 천자식에 배워줄 가방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제품의 질과 가공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평양수지업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의 정비보강과 함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 있다. 본사기자

학용품생산단위들에서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학용품공장과 소나무학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질 좋은 학용품을 더 많이 만들 일념 안고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 있다.

평양수지업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의 정비보강과 함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 있다. 본사기자



## 아름다운 조국경관

칠보산의 내칠보구역에 위치한 내경대는 내칠보의 안쪽경치를 가까이에서 둘러볼수 있다고 하여 내경대라고 부른다. 내경대는 승선대와 탄금대사이 금강골에 위치한 곳으로서 멀리로는 망월대, 무희대와 함께 넘쳐나게 담은 밤그릇같은 반두암, 《팔만대장경》을 꽃아놓은듯한 서책봉, 피아노바위, 레몬암, 가마바위 등이

한눈에 안겨오고 가까이로는 타종암과 종각봉, 유람선바위를 비롯한 한 수 많은 기암괴석을 부감할수 있는 곳에 있다. 본사기자



## 백암쥐토끼

백암쥐토끼는 쥐토끼과에 속하는 짐승이다. 몸길이는 15~20cm이고 몸질량은 130~160g이다. 몸의 크기는 큰 집쥐만 하다. 중등이는 몽톡하고 귀는 작고 둥글며 꼬리는 없다. 앞뒤다리는 짧으며 그 길이는 비슷하다. 발바닥에는 털이 없고 발바닥땀이 드러난다. 몸의 등쪽은 붉은밤색이고 아래편은 재빛흰색이다. 백암군의 높은 지대는 이끼덮인 바위들이 많고 무성한 숲과 풀로 뒤덮여있어 백암쥐토끼들의 생존에 아주 유리하다. 백암쥐토끼는 주로 돌짜이나 나무뿌리에서 사는데 저녁 해질무렵



## 사화

### 속떡에 잇든 사연 (1)

사동구역 리현리에 속풀이 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새싹이 파릇파릇 울드는 봄이 오면 푸른빛에 은빛이 도는 속풀이 마을의 들판과 밭두둑들에 뒤덮여 봄철은 물론 여름, 가을까지 짙은 속향기속에 묻혀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속풀이라고도 하고 속떡을 많이 빚어먹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떡설이라고도 하여왔는데 여기에는 속으로 떡을 빚어먹게 된 한 노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잇겨져 있다. 아득히 먼 옛날 속풀에 솔메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솔메는 아련하면서 어여쁘게 생긴 곱고슬과 달리 마음은 매우 강직하였다. 그가 처녀풀이 잡히기 시작하자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반하여 사방에서 그의 집문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청혼이 들어왔다. 하지만 솔메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모든 청혼을 거절하곤 하였다. 부모들이 그에게 좋은 혼인감을 추천하고 꾸지람할 때 마다 솔메는 방긋 웃으며 《저와 한생 뜻을 같이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들어야 할게 아니오이까? 부모님들은 넘버마소이다.》라고 대담하곤 하였다. 이 시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외적이 속풀로 쳐들어온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하자 속풀마을 좌상인 솔메 아버지는 마을장정들과 함께 싸움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외적을 맞받아 싸울러로 달려갔다. 솔메는 마을의 부녀들과 함께 전장으로 보낼 식량과 음식을 마련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해질무렵이었다.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동구길로 전령군사(령을 전달하는 군사)가 탄 말이 요란한 말발굽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솔메네 집앞에 멈춰섰다. 《좌상어른의 소식을 가지고 왔소이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솔메는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웨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섬적하였다. 무슨 일이 생기게 아닐까. 그는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으나 마음을 다잡으며 문을 열고나섰다. 문밖에는 부리부리한 눈과 무뚝한 코, 흰철한 키와 빠그린 어깨로 하여 첫눈에 현현장부로 안겨오는 낯모를 군사가 서있었다. 솔메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고 황황히 글줄을 더듬었다. 《솔메야, 이 아버지를 죽인 외적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

고가는 범이 좋은 젊은이이다. ...》 《아버지!...》 솔메는 아버지를 목메어부르며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다. 한동안 설문을 토하고나서 솔메는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서신을 다시 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곧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남긴 부락을 절대로 잊지 않겠사옵나.》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추추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잠시후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말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간 솔메는 《호오옹-》 하



으니 부디 이 준마를 받아주시시오.》 《아-니? 이거...》 처녀의 갑작스런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범이는 얼음이 수수떡처럼 벌개져 그냥 서있기만 하였다. 《아버지가 남기고간 원한을 제물까지 합쳐 꼭 풀어주기 바라나이다.》 《솔메!》 그제서야 솔메의 깊은 마음과 결심을 알게 된 범이는 가슴이 뜨거워져 그의 두손을 꼭 잡았었다. 당시 외적의 침입이 잦은 때여서 속풀마을에서는 처녀들이 좋은 말을 길러두었다가 혼인할 총각에게 주는 습속이 있었다. 솔메가 정성껏 길러온 준마를 범이에게 넘겨준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지막의향을 받아들인 결심을 가지고 그에게 혼인할 뜻을 표시한것이었다. 범이는 속풀의 막바지인 산기슭에서 흠여머리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이름난 사냥꾼이었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범이는 힘이 장사였으며 특히 창던지는 솜씨가 여간 아니었다. 솔메의 뜨거운 사랑과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다시 싸울러로 달려간 범이는 창을 쭈켜들고 외적의 무리를 삼대배듯 쓰러놓았다. 이렇게 전장에서 여러달 싸움에만 몰두하던 범이의 몸이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 갔다. 어렸을 때 앓았던 속병이 다시 도졌던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솔메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